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편향성과 학문적 자유의 억압 : 국제정치 연구프로그램의 확장과 금기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양 준 희

경희대학교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지적 상아탑에서의 탈출 : 문제의식의 확장
의식의 전환 |
| II. 권력과 진실 : 학자의 책임과 의무 | V. 결론 |
| III. 학문적 자유와 진실을 침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 실증주의와 현실주의
패러다임 | 참고문헌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 미국적 국제정치(International Relations as an American Social Science), 학문적 자유(Academic Freedom), 실증주의와 현실주의 패러다임(Positivism and Realism), 지적 상아탑에서의 탈출(Escape from the Intellectual Ivory Tower), 금기주제(Taboo Subjects)

국 문 요 약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Howard Zinne)은 달리는 기차에서 종립은 없다는 말을 하였다. 달리는 기차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종립이 아니라 특정 목적지와 속도에 이미 동의한 것이란 뜻이다. 국제정치란 학문이 미국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국제정치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류의 국제정치학계가 원하는 주제를 연구하고 흐름을 따르면 그것은 국제정치학계의 미국적 편향성에 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40년이 넘도록 국제정치학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아 왔던 실증주의와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학자들의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여 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국제정치학자들은 주류의 국제정치학계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민주평화, 패권안정, 문명충돌 등의 주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금기시되었던 논의조차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유대러비, 로스차일드 가문, 빌더버그, 국제 금융재벌, 군산복합체, 9.11사태, UFO, 연방준비은행 등의 주제는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무시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것이 본 논문의 관점이다.

I. 서론

2005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 논의된 가장 건설적인 논란 또는 연구프로그램(the most productive controversies/research programs)이 무엇이나고 묻는 질문에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은 1) 민주평화(48%), 2) 합리주의 대 구성주의(33%), 3) 문명충돌(25%), 4) 행위자-구조 논쟁(21%), 5) 패권안정이론 (16%), 5) 구조적 현실주의(16%), 7) 분석수준(15%), 7) 투 레벨 게임(15%), 9) 실증주의 대 탈실증주의(11%), 10) 상대적 대 절대적 이익(8%), 11) 신제도주의(7%), 12) 역사의 종언(5%) 등을 선택하였다.¹⁾ 저자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위의 연구프로그램들이 국제정치학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학자적 삶의 상당 부분을 위의 주제 또는 그와 연관된 분야를 연구하느라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위의 주제들 대부분이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이거나 현실세계에 현재 존재하는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매우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프로그램들의 핵심 메시지를 조금 과장하여 요약하자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보다 우월하고 미국/서구의 패권이/세계지배가 인류전체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다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상아탑 속에서 진행되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논의인 것이다.²⁾

국제정치란 학문이 미국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국제정치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2003년에 개최된 국제연구학회(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의 학회장 연설에서 스티브 스미스(Steve Smith)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의 10가지 핵심특징과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국제정치이론이 부유하고 제국적인 강대국 중심의 매우 편파적인 시각이었음을 지적하였다.(Smith 2004, 499-515) 또한 그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 대부분이 편향된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9.11사태를 유발시키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Smith 2004, 510). 깊은 통찰력과 경험적 지혜를 바탕으로 제기된 스미스의 문제의식은 국제정치학계라는 학문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주류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스미스의 고언(苦言)을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확률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미국적 국제정치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제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의 미국적 편향성에 대한 진지한 의문제기가 주류의 국제정치학계로부터 대수롭지 않거나 진부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것은 국제정치란 학문이 과연 무엇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국제정치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1) 여기서 총합이 100%가 넘어가는 이유는 세 가지 주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Malikiak *et al.* 2007, 29) 참조.

2) 물론 메타이론적 논의나 철학적 성찰이 중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지적 논의가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존재하여야지 지적유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식하였든, 의식하지 못하였든 국제정치학계에서 벌어졌던 주류의 논의가 서구/미국 그리고 지배계급의 권력과 부를 합리화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특히 국제정치학계에서 40년이 넘도록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아 왔던 실증주의와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학자들의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을 억압하는 지배계급의 가장 효과적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제정치학자의 의무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가치판단을 내리거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에 있지 않다고 강조함으로써 실증주의/현실주의 패러다임은 현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실증주의/현실주의 패러다임이 과학과 현실의 이름으로 학문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국제정치학자들은 주류의 국제정치학계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민주평화, 패권안정, 문명충돌 등의 주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금기시되었던 논의조차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유대노비, 로스차일드 가문, 빌더버그, 국제 금융 재벌, 군산복합체, 9.11사태, UFO, 연방준비은행 등의 주제는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무시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것이 본 논문의 관점이다.

II. 권력과 진실 : 학자의 책임과 의무

국제정치란 학문이 엄밀히 말해 한 번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적 기획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는 크리폰도프(Ekkehart Krippendorf)의 주장에 의하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여 데모에 참가하였던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정치학을 전공하였던 학자는 드물었고, 국제 정치학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Krippendorf 1987, 212). 크리폰도프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 모겐소를 비롯한 몇몇 국제정치학자들은 베트남 전쟁에 분명히 반대하였다. 문제는 모겐소가 베트남전쟁에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전쟁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대량학살(genocide)을 통해서라도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모겐소의 견해였다(Morgenthau 1970, 404). 베트남 전쟁당시 반전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모겐소처럼 미국의 국익이란 관점에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였던 국제정치학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국제정치학자들을 다른 이상주의자나 도덕주의자와는 달리 한 단계 높은 지적 분별력을 소유한 현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학문에 도취되어 도덕적 균형 감각을 상실한 지식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국제정치학계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아시아의 ‘힘없는’ 작은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침묵하거나 국제정치의 과학적 분석이라는 미명하에 선악의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강대국의 오만과 무지로 인해 수백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된 전쟁에 대해 그 어떤 가치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은 사실 이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문적 논의가 국가이익, 오산(miscalculation), 오인(misperception), 억지

(deterrence) 등의 개념과 관련된 지극히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토론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미국의 행위를 용인 내지는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한다면 우리는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이나 일본이 아시아인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된다. 사실 미국정부가 베트남을 상대로 사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독일이나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1961년부터 1968년까지 존슨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는 베트남 전쟁 당시 자신이 과오를 저질렀음을 1995년에 마침내 인정하였다. 맥나마라는 “미국의 지도자는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원칙마저도 무시했고” 베트남 민족에게 가한 무차별적 살상과 도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전쟁범죄였다고 고백하였다(황성환 2009, 344). 안타까운 것은 맥나마라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고 아직도 미국정부는 베트남 정부에게 정식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로니컬한 것은 상당부분의 미국사회와 학계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야만적 행위에 주목하기 보다는 베트남 신드롬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 사회와 국가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상처에 주로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일부 일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 자신들이 저지른 약탈과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아시아의 작은 국가를 상대로 20년 넘게 야만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국제정치학계라는 학문 공동체의 자의식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미국 중심적 국제정치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주류의 사상적 흐름에 반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조롱과 매도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때론 학자적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위험한 시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엄밀히 말해 국제정치학자라 분류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공하고 있는 촘스키(Noam Chomsky)의 경우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주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촘스키가 이론을 만들지 않고 다른 국제정치학자들의 작업과도 연계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학문적 작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Osborn 2009, 351-370). 하지만 촘스키만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국제정치시스템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는 학자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촘스키의 대부분의 작업들이 방대한 실증적 증거와 일관된 논리체계에 기초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³⁾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촘스키가 지식세계의 왕족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과 국제정치학계는 40년이 넘도록 정치와 관련된 그의 학문적 작업을 철저히 외면하여 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촘스키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만약 유대인이 아닌 다른 학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촘스키 같은 비판을 시도하였다면 아무리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3) 촘스키의 문제는 비슷한 내용의 책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출판하는 것과 모든 문제를 미국에 돌리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성향은 분명 많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 대한 그의 학문적 작업은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Chomsky 1967/2002, 324) 참조.

로나 학문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정치학의 창시자로 칭송받던 모겐소 조차도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계속해서 피력하자 주류학계와 사회로부터 배척당했다고 한다(Osborn 363-364). 이와 같은 예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을 향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학자들이 권력을 향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두려워한다면 역사는 계속해서 승자의 역사가 될 것이고 힘이 곧 정의라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기게 될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과연 그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인류에게 남길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I. 학문적 자유와 진실을 침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 실증주의와 현실주의 패러다임

우리는 유럽의 중세시대에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갈릴레오는 1633년 교황청으로 소환당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지동설을 부인하였다. 그는 앞으로 절대 이단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말이나 글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맹세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하였고 평생을 가택연금의 상태로 살았다. 그리고 교황청이 갈릴레오를 공식 복권시키기까지는 35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사실 갈릴레오뿐만 아니라 뉴턴과 다윈 등의 학자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과학적 진실이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될까봐 전전긍긍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거의 코미디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마호메트에 관한 만화로 인해 유럽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류의 비이성적 행위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도킨스 2007, 42-47).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자신들이 중세가 아닌 현대에 태어난 것을, 그리고 종교가 아닌 국제정치를 전공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그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사형선고를 받거나 물리적 폭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국제정치학계는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있는가이다. 만약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지배 세력이 원하지 않는 주제를 다루었을 때 재정지원이 끊기고, 논문이 주류저널에 실리지 않고, 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세련되고’ ‘고차원적’인 억압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실증주의와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매우 고차원적이고 세련된 차원에서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고 조종할 수 있는 지배계급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의 교회처럼 노골적으로 진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현실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주류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면서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실증주의 패러다임 : 가치중립과 객관적 관점에 대한 신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대의 행태주의 혁명은 인문사회과학을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국제정치학계에 처음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은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에서의 눈부신 발전이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바람직한 생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학과 심리학 같은 국제정치학의 인접학문의 실증주의적 성공은 국제정치학자들에게 국제정치학의 과학적 분석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켜 주었을 것이다. 상식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국제정치란 학문분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론과 방법론에 기초하여야지 정치적 선동이나 개인적 신념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란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Max Weber)는 학문적 작업에 있어 학자는 자신의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였고(Weber 1948, 145-146)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학의 객관화와 과학화를 주장하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것이다.

자연과학의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국제정치학계에서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선택한 것은 자연과학과 같은 학문적 존엄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과학과 국제정치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국제정치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Wendt 2006, 181-219; 양준희 2008, 89-115). 또한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을 잠재움과 동시에 진실추구에 대한 학자의 학문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역할을 하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실증주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논쟁을 학문적으로 충분히 다루려면 끝없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국제정치란 학문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 될 수 없고 자연과학과 같은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뉴턴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국제정치에 적용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정치란 학문은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고 영국이나 유대인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는 없다. 특정 이론이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지 그 이론자체가 편향적이고 가치 내재적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이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행위 자체가 이미 가치 내재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특정 주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매일 3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치료될 수 있는 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고 세계의 가장 부자 1%가 가장 가난한 57%의 소득을 받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현 상황에서(Smith 2004, 508) 인간본성, 무정부 상태, 패권안정 이론 등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 자체가 이미 객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국제정치학이 절대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연의 세계에

서는 과학자의 선호나 가치에 의해 자연의 법칙이 바뀌지 않지만 국제정치는 인간의 가치와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들이 바뀐다는 것이다. 구성주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세상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규범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Wendt 1999). 실증주의학자들이 강조하는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 분노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자들은 중력이나 열역학의 법칙에 대해 분노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는 이유는 그들의 선호나 분노에 의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법칙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정치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나 분노에 의해 역사가 바뀐다. 우리가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야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에 있지 그것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법칙이 발견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법칙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양준희 2008, 103-105). 사실 국제정치란 학문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시도를 ‘비과학적’이고 ‘비학문적’인 것처럼 매도한다면 그것은 현 체제를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규범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학문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을 엄격하게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나름대로 국제정치학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정부 또는 지배계급이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서운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종교대신 과학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현 시대에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과학의 이름으로 효과적이고 정당하게 현 체제에 반대하는 견해를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증주의 학자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려면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또는 지배세력에 의해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그 누가 실증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중대한 외교정책의 대부분이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몇 십 년이 지나야 학자들에게 일부 공개되는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나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사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4)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지배세력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국제정치학자들이 지금 당장 조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높은 잣대를 국제정치학계에 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실증주의 패

4) 진주만 습격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논의로는 (Morgenstern 1947/1991) 참조.

러다임이 권력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국정부 또는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이익과 선호에 맞아 떨어지는 연구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라 칭송하면서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 주고 반면 현 체제를 위협하거나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연구는 자연과학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 또는 지배계급에 의해 미국의 국제정치학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또 다른 논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고 그것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하다.⁵⁾ 하지만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배계급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웰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역사적으로 틀렸더라도 라카토쉬의 진보적, 퇴보적(progressive, degenerative) 연구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수많은 논의를 끌어들이며 계속 과학적 이론이라고 지지하고⁶⁾ 촘스키처럼 부유하고 제국적인 강대국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시키면 그의 논의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이론화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촘스키의 논의가 매우 논리적이고 방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과학적 논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번스타인(Steven Bernstein) 등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듯이 국제정치의 과학적 연구와 과학적 방법론은 국제정치의 연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의 목적이 되어 버렸고 학자들은 최악의 경우 특정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루기 쉽기 때문에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Bernstein et al. 2000, 44). 국제정치학계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논의라도 비실증적이고 미국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무시당하거나 비판받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의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잘 포장하면 존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배계급의 의도에 의해 계획되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진행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정치학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와 같은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2. 현실주의와 국제정치 : 악(evil) 또는 비극(tragedy)?

웨일즈의 사업가인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es)가 1919년에 국제정치란 학과를 에버리스 트위스(Aberystwyth)에 처음 창설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국제정치학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규범적 학문이었다. 즉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대한 연구와 강화를 통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재앙을 막고 인류의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 데이비스의 비전이었던 것이다(Porter 1989, 27-36). 하지만

5) 이 분야와 관련된 최고의 연구로는 (Mills 1956/2000) 참조.

6) 웰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이 절대 반증이 될 수 없고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이비종교에 가깝다는 주장에 대해서 (양준희 2009, 159-188) 참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세운 대학에서 학장을 지낸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계속해서 데이비스를 비판하였고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에버리스트위스의 국제정치학과를 운영 하였던 카아(E. H. Carr)는 유토피아니즘(utopianism)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지적 전통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만드는 지적 패트리엇 미사일 역할을 하였다(Booth 1991, 527). 자신이 만든 대학 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데이비스는 말년에 신에게 이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후회하였다. 데이비스가 희망하였던 것과는 달리 국제정치학은 국제협력보다는 권력정치에 초점을 맞추었고 현실주의는 곧 국제정치학계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과 미·소간의 오랜 냉전은 이상주의자들이 소망하였던 세계평화가 인간과 국제구조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희망에 바탕을 둔 비학문적인 논의인 반면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있는 그대로’의 국제정치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는 과학적 분석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이전에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한 대부분은 학자들은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과 부를 향한 계속되는 투쟁이라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배웠을 것이다. 또한 홉스, 니버, 모겐소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현실주의 사상가들의 인간본성에 대한 설명과 윌츠로 대표되는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의 무정부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과 전쟁의 근본원인이 사악한 인간의 본성이나 비극적 무정부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악함에 기초하든지 아니면 비극적 무정부상태에 기초하든지 갈등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인간이 권력 지향적이고 이기적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도덕이나 정의 같은 이상적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 않더라도 국제구조가 무정부상태라는 비극적 상황이라면 국가는 최선을 다해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개인의 이기심이 오히려 사회 전체에게는 선이 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전파시켰듯이 현실주의는 생존을 위해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약탈자와 침략자에겐 현실주의 이론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시각도 없을 것이다. 유럽의 제국주의적 국가들이 18세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벌였어도 그것은 권력지향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시도하였을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나 유럽의 무정부상태가 식민지침략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논리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비록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인간본성과 무정부상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설명에 설득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본성과 무정부상태에 대한 논의만큼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논리의 비약이 심한 주장도 없을 것이다. 고전적 현실주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본성이 악(evil)하다는 기초 하에 국제정치를 분석하고 있을 때 그것은 매우 그럴 듯 해 보일지도 모른다. 홉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영원하고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류의 전반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였을 때, 니버가 “도덕주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모든 인간 집단의 행동이 가지는 잔인한 성격과 모든 그룹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집단적 이기심이다”라고 하였을 때, 모겐소가 “권력투쟁은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며 “삶, 번식, 지배에의 의지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Hobbes 1968, 161; Niebuhr 1960; Morgenthau 1985, 31, 38) 이라고 역설하였을 때 그것은 상식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간본성에 대한 문제는 철학자, 과학자, 성직자 등을 비롯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논의한 문제이고 그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주제이다. 비록 동물행동학자인 도킨스는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말이다. 도킨스에 의하면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꾀데기에 불과하고 이 유전자의 세계는 비정한 경쟁, 끊임없는 이기적 이용,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 차있다고 한다(도킨스 1993).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도킨스가 옥스퍼드를 나온 동물행동학자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자들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Kenyon 2005) 인간본성에 대한 의문을 도킨스가 모두 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맹신’과 유사한 과학에 대한 ‘맹신’이 될 것이다. 즉 어떤 유명한 주교나 목사가 신에 대해 무엇이랴 말했다고 하여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스티븐슨과 헤이버만이 지적하고 있듯이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이른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만한 어떤 보편적인 것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워하고, 또한 이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통해 각자의 명성을 얻는 것을 선호한다”(스티븐슨 *et al.* 1998, 355). 사실 몇 세기 동안 끝없이 계속되어온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신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논의를 벌이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현실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본성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분석하고 있는 고전적 현실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은 사실상 모래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츠는 실증적으로 반증될 수 없는 인간본성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고전적 현실주의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누군가가 신에 대해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과 이론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반증될 수 없다면 그것은 철학이나 종교에 가깝지 사회과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전적 현실주의의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역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반증할 수 없는 인간본성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사회과학적 이론이기 보다는 철학이나 종교에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철학이나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논하는 것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늪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가 국제정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하였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개념은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성장한 미국인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주장은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월츠는 인간이나 국가가 사악하지 않더라도 생존을 확보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루소의 사슴사냥 우화와 수인의 딜레마를 통하여 개발하였다(Shimko 1992, 281-301). 전쟁의 근본원인이 개인이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상상태라는 국제체제에서 기인한다는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주장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월츠 이전의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의 원인을 개인이나 국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히틀

러나 자본주의를 전쟁의 원흉으로 지목하였던 것에 반하여 월츠의 신현실주의이론은 무엇인가 좀 더 깊은 수준의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전쟁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의 핵심을 그럴듯하게 짚어내고 있는 사슴사냥이나 수인의 딜레마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이야기 모두 국제정치의 현실을 묘사하고 설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명백하다.

보통 사슴사냥을 하거나 범죄를 같이 도모하였을 경우에는 서로가 잘 아는 경우가 많고 같은 사회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사냥을 하거나 범죄를 도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실세계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약속과 신의가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는 사회나 조직에서 그리고 배신을 하였을 경우 불명예와 보복이 따르는 상황에서 배신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사슴사냥이나 범죄행위가 한번에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경우 협동이 아니라 배신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것이다. 사실 사슴사냥이든 수인의 딜레마든 배신을 선택한 개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슴사냥의 경우 나머지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수인의 딜레마의 경우 다른 공범이나 조직이 형을 마치고 나온 배신자를 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배신을 한다면 그것은 나머지 개인들이나 조직을 상대로 싸움에서 이길 강자만이 가능하다. 약자의 경우 강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배신을 택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사냥꾼이 되었던 범죄자가 되었던 배신이라는 선택이 구조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복이나 불명예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강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배신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국제정치에서도 강대국만이 감히 배신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부정부상상태라는 구조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 아닌 것이다. 스미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사실 사슴사냥이나 수인의 딜레마는 엄격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작동하는⁷⁾, 어떻게 보면 기본정의에 의해서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의 동어반복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1+1=2라는 답은 수학을 배운 사람이면 모두가 정의상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듯 말이다.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의 동어반복에 가깝고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국제정치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려 하는 논의가 어떻게 국제정치학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분명 수인의 딜레마나 안보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펠로폰네소스전쟁이나 1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와 같은 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 속에 펠로폰네소스전쟁이나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예외에 가깝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시저, 알렉산더,

7) 스미스는 수인의 딜레마에서 생략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mith 2004, 502). “행위자는 소통 소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미래의 그림자가 없다(there is no shadow of future); 우리는 그들의 어떤 관계였는지 전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유죄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수인의 딜레마에 빠졌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모른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히틀러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 전쟁은 지도자들의 욕심, 야망, 어리석음, 이기심에서 시작된 것이지 비극적 무정부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또한 현실주의 학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비록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아테네의 힘의 증가와 그것이 스파르타에 가져다 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지만(Thucydides 1972, 23) 그의 저서를 자세히 읽다보면 펠로폰네소스전쟁의 많은 부분이 힘을 기초로 한 아테네의 무분별한 행동과 코린토스나 코르키라 같은 일부 강대국들의 현명치 못한 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또한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나 국제구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은 전쟁직전까지의 카이저의 무분별한 행동과 전쟁을 원한 오스트리아의 태도를 간과하는 결론이 될 것이다. 비록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지도자들의 야망, 이기심, 욕심, 어리석음을 논하지 않고 무정부상태만을 강조하는 것은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논리를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한 것도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을 중국에 처형한 것도 모두 무정부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부시가 진정으로 사담 후세인이 두렵거나 세계의 위협이 될 것 같아서 이라크를 침공했을까? 부시와 그의 수하들의 개인적 이득과 석유 확보 및 미국의 패권유지가 좀 더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쟁의 원인이 아닐까?(Owens 2007, 265-283; Schmidt and Williams 2008, 191-220).

우리는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거나 그 사람이 속한 환경이 무정부상태와 같았다고 하여 그의 행동을 용서하지는 않는다. 또한 설사 인간본성이 악하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의 악한 행동을 예방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웬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정치에서는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 방화, 약탈, 침략, 욕심, 이기심, 야만, 잔혹함 등을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정당화시키려 한다. 그리고 현실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국제정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라지거나 분명치 않게 되고 가치가 전도됨을 알 수 있다. 멜로스회담의 예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펠로폰네소스전쟁 중에 아테네는 중립으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멜로스인들을 상대로 “강자는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주의 역사에 남은 ‘명언’을 남기면서 멜로스인의 항복을 요구한다. 아테네의 입장에서 볼 때 멜로스가 도덕이나 희망을 바탕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멜로스인들은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결정하고 결국 성인 남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여기서 현실주의는 아테네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멜로스의 선택은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무모한 선택이었다는 메시지를 인류에게 던진다. 중립으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멜로스를 공격한 아테네의 ‘야만적’ 행동은 용서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국가를 지키려 하였던 멜로스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이 논리를 따르자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해 독립운동을 벌였던 한국의 모든 독립군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으며 베트남은 미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

을 벌이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묘사한다는 미명하에 강자의 욕심, 야망, 이기심, 약탈, 만행 등을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시키고 부정의에 대한 약자의 ‘당연한’ 반항을 분별력이 모자라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치부하는 현실주의는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나 지배계급의 관심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권력과 부라는 요소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옳고, 그름과 같은 가치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제정치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리기 보다는 그 어떤 규범적 논의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면서 약육강식의 세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매우 ‘비현실적’인 강자의 논리이다. 정의롭지 못한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려 투쟁을 벌이거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무모하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닐 것이다.

IV. 지적 상아탑에서의 탈출 : 문제의식의 확장과 의식의 전환

오늘날 지구상에는 18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수입에 의존해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반면 가장 부유한 1퍼센트의 인구는 가장 가난한 사람 57퍼센트의 수입을 모두 합한 것과 같은 액수의 돈을 번다(지글러 2005, 36). 1820년대에 서유럽과 세계 최빈지역(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1인당 GDP차이는 겨우 3대 1 정도였다고 추정되나 1990년대에 이르러는 최고 부자 지역(서구 파생국)과 최빈 지역(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차이는 20대 1로 늘어났다(삭스 2001, 79-80). UNCTAD가 설립될 무렵, 제3세계 122개국의 왜채를 모두 합한 액수는 540억 달러 정도였으나, 현재는 20조에 달한다(지글러 2005, 36).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을 일하였던 장 지글러(Jean Ziegler)는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1천만 명 이상이 해마다 영영 결핍이나 각종 전염병, 오염된 식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세계의 현 상황을 두고 “오늘날 인류가 처한 비참함의 정도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늘날 지구에는 재화와 부가 넘쳐나지만 수치의 제국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은 철저히 의도적으로 희귀재를 만들어 나가고 수많은 희생자들은 객관적인 결핍이 아니라, 재화의 공평하지 못한 분배, 즉 인위적인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 강조한다(지글러 2005, 34-35). 특히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500개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지구 전체 생산의 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500개 기업이 추적한 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33개국의 부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크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들 신흥 봉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여 자신들의 권력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일이며).....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반대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 지글러의 주장이다(지글러 2005, 248). 비록 지글러처럼 직설적으로 세계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에서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연구원인 데이비드 로스코프(David Rothkopf) 또한 소수의 가문들이 부를 지배하고,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소수의 정치 및 군 지도자들이 권력 수단을 지배하고 그들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의 저서 『수퍼클래스(superclass)』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소수의 지배자들은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권력을 확대하고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암암리에 사회 내의 불평등을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로스코프는 C. 라이트 밀스(C. Wright Mills)의 연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대신한다(로스코프 2008, 48-49).

지글리가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로스코프가 암시하듯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지배자들이 계획한 의도된 인위적 결핍에 의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아, 폭력, 학살, 부정의, 약탈, 부채 등의 원인을 미국/서구 또는 지배계급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겠지만 세계에 대한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착취,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위의 권력집단을 조사하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⁸⁾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의 자본이 움직이고, 중동지역의 석유가 서구의 몇몇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⁹⁾ IMF를 통해 남미의 국가들이 빛의 늪에 빠지게 되고, 서구의 군수업체들을 통해 수입한 무기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은 인간본성이나 무정부상태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탐욕과 권력욕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지배계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정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전쟁이 인간본성이나 무정부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기를 희망하겠지만 말이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고들면 인간본성이나 무정부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를 쓰자면 국내정치에서 벌어지는 모든 개인적 살인과 불법행위도 인간본성과 불우한 환경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계라는 학문 공동체가 지배계급에 의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고 학자들이 그와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의식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주제는 문명충돌, 민주평화, 양극, 다극체제, 패권안정론과 같은 논의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이다. 특히 월스트리트 자본, 군산복합체,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빌더버그 그룹, CRF(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국의 비밀작전, 로스차일드 가문, 유대인 로비, 미국연방준비은행 등에 대한 논의는 소위 말하는 음모론자만이 다루기에는 학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유대인 로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이 발생하고,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의제가 결정된다면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국제정치학자들의 학문적 분석이 필요한 분야도 없을 것이다. 사실 국제정치학자들이 음모론자로 매도되어 학문공동체로부터 조롱받고 따돌림 받는 것을 덜 두려워하였다면 위의 주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었어야 하는 주제들이

8)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못하는 서양의 세계정복에 대한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촘스키의 책을 읽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Chomsky 1993; Chomsky 1994/1996).

9) 석유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의로는 (Engdahl 1992/2004) 참조.

다. 그런 면에서 최근 미어샤이어(John J. Mearsheimer)와 월트(Stephen M. Walt)가 주류의 국제정치학자로는 거의 처음으로 이스라엘로비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진지한 학문적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Mearsheimer and Walt 2007).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출판한 책이 격정적 분노와 금기시된 주제를 다루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세계의 그 어떤 세력보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유대로비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학자들이 자유롭게 이 주제를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아직도 이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 것이 격정적 분노를 자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로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중동이나 아프리카도 아닌 21세기 미국에서, 그 어떤 국가보다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자칭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니 말이다.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음모론하면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논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누구도 학문적 신뢰도를 의심할 수 없는 소수의 학자들이 지배계급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고 그것이 국제정치학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케롤 퀴글리(Carroll Quigley) 교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역사를 전공하고 하버드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받은 그는 프린스턴, 하버드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의 School of Foreign Service(1941-1976)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비밀결사(secret societies) 조직이 존재하는 것을 주류의 학자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밝혔다. 퀴글리에 의하면 1891년에 세실 로드(Cecil Rhodes)와 알프레드 밀너(Alfred Milner)가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었고 그것은 라운드 테이블(the Round Table Group)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 조직이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도하였다고 한다(Quigley 1981, 3-7). 퀴글리는 이 조직을 밀너그룹이라 불렀고 그것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빌더버그 그룹(The Bilderberg Group), 미국의 외교협의회(CFR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밀너그룹의 파생조직이고 영미 중심의 엘리트 조직이 세계정세를 조종한다는 것이 퀴글리의 핵심 견해이다(Quigley 1996).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금융재벌인 데이비드 록펠러, 넬슨 록펠러, 필립 영국 왕자,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그린스핀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은 빌더버그 그리고/또는 외교협의회 회원이(였)고(송홍빈 2007, 250) 미국의 경우 1921년 이후 재무장관 18명 중 12명, 국무장관 16명 중 12명, 국방장관 15명 중 9명,(이리유카바 최 1999/2009, 373) CIA 국장 13명 중 9명이 CFR 멤버였다(Flynn 2000, 84).

중요한 것은 이들 조직이 정치, 경제, 언론, 흥행, 교육, 법조계 조직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목표를 설정하면 신문, 방송, 영화 등을 통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촘스키는 『여론조작 :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언론은 무엇보다 언론을 통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을 위해 봉사하고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제(agenda)와 정책을 추진하며, 이들은 언론 정책을 결정하고 통제하는데 유리한 위치

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츨스키 and 허먼 2006, 9). 안타까운 것은 츨스키 같은 ‘용감한’ 학자조차도 퀴글리 교수가 지적한 영미의 엘리트 조직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퀴글리 교수의 존재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2년 7월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케네디에게 받은 소명을 자신의 조지타운대학의 은사인 퀴글리 교수로부터 명료하게 확인하였다는 감사의 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주류의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클린턴이 로드(Cecil Rhodes)장학금을 받았고 그것을 추천해 준 사람이 퀴글리라는 것이다.

만약 국제정치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적 상아탑에서 벗어나 조금만 눈을 돌릴 수 있다면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최근 웬트(Alexander Wendt)가 정말 용감하게도 주권과 UFO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Wendt and Duvall 2008, 607-633) 그의 논문을 진지하게 읽거나 관심을 기우린 국제정치학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UFO의 문제는 정부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설사 UFO가 외계인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웬트는 만약 하나의 UFO라도 정말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 그것은 가능성이 희박 하더라도 진지하게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Wendt and Duvall 2008, 611). 사실 UFO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계인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고도의 훈련을 받은 비행조종사들이 지구의 비행물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행물체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목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Jacobs 1992). 또한 그 모든 현상을 환상이나 착시현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합리적’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 것이다. 만약 모든 UFO 현상이 기상풍선을 비롯한 다양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미국정부가 UFO와 관련된 많은 문서들을 영원한 기밀문서를 묶어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실 웬트는 UFO와 관련하여 자신의 학자적 명성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만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는 앞으로 학문적으로 더 과감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9.11사건에 대한 음모론적 관점이다. 2002년 티에리 메이산(Thierry Meyssan)이라는 프랑스의 저널리스트가 처음으로 9.11사태를 미국 스스로가 꾸짖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¹⁰⁾ 미국의 정부가 3,000명이 넘는 자국의 국민을 세계가 모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계획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9.11과 관련된 의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부시행정부가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났다는 것이다. 즉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알카에다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부시행정부가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사실 오사마 빈 라덴도 사우디 출신이고 9.11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거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사우디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시행정부가 계속해서 이라

10) 중요한 것은 메이산이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사람들 중에 거의 한 사람도 그의 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Meyssan 2002).

크를 범인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당시에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매체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과 이라크의 개입가능성을 부각시켰고,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모든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암시하는 것이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9.11테러 직후 우편으로 배달되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탄저균 공포는 미국 사회를 거의 패닉상태로 몰아갔고 부시행정부의 전쟁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2001년에 발생한 탄저균 우편은 미 육군 생물학연구소에서 35년간 근무한 브루스 이빈스(Bruce E. Ivins)의 소행이었다. 또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한 사건의 용의자가 스스로 자살하거나 암살당하였듯이 이빈스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모든 책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된 무명의 과학자가 짊어지게 되고 이 문제는 아주 작게 지나가는 기사로 언론에 언급된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중대한 비밀을 제공하였던 사건에 미국 정부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도 그와 같은 ‘작은’ 사건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9.11사건은 인류의 의식 속에 깊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부시행정부는 이 사건을 빌미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였고 중국에는 사담 후세인을 처형시켰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9.11은 미국정부의 용인 내지는 개입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음모론자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지식인들의 견해이다. 만약 부시행정부가 정말로 9.11사건과 관계가 있었거나 고의로 이라크를 침공하였다면 그것은 부시를 비롯하여 럼스펠드, 체이니, 월포비츠 등의 모든 정책결정자들을 전범재판에 회부하여야 할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 미국의 주류 국제정치학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Security, World Politics* 등의 미국주류의 그 어떤 국제정치저널도 9.11사건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을 출판하지 않았고¹¹⁾ 부시행정부의 ‘거짓말’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다. 부시행정부와 네오콘들이 ‘악당’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설사 그들이 사담 후세인을 의도적으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각자의 견해는 약간씩 다르지만 종교철학을 전공한 클레몬트 대학의 그리핀(David Ray Griffin), 영어를 전공한 버클리 대학의 스콧(Peter D. Scott), 국제법을 전공한 프린스턴 대학의 포크(Richard Falk)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과 지식인들이¹²⁾ (Griffin and Scott 2007) 9.11사건의 음모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국제정치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제정치학자들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국제정치란 학문이 미국 중심적 논의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금기시되었던 논의가 학문적으로 자유롭고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류의 일부

11) 물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논문들은 출판되었다.

12) 9/11에 관련한 최고의 책 중에 하나는 선명한 컬러사진을 통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Hufschmid 2002)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유대로비, UFO, 9.11사태 등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룬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을 포함한 국제 금융재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군산복합체, 월스트리트 자본 등을 비롯한 지배세력의 세계지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류 전체의 이익과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프로그램들이 국제정치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수정주의 역사가로 알려진 하워드 진(Howard Zinne)은 달리는 기차에서 증류는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Zinn 1994/2002). 달리는 기차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증류가 아니라 특정 목적지와 속도에 이미 동의한 것이란 뜻이다. 국제정치학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 대부분이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인 것을, 실증주의/현실주의 패러다임이 미국이나 지배계급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제정치학계의 주류적 흐름에 동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서구/미국 그리고 지배계급의 세계지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UFO, 9.11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음모론자가 아닌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촛스키의 논의가 대부분 매우 비판적이고 좌파적 색채가 너무 강하여 때로는 균형 감각을 상실한 느낌을 주듯이 본 논문은 어떤 면에서 현재의 국제정치학계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비판적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실증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실증주의/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지배계급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철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다양한 음모론적 시각을 표피적으로 다룬 것은 학문적으로 경솔한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망과 실력을 갖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할 일부 음모론자들은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간절히 희망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미국적 편향성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주류학계의 사고체계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금기시된 주제를 다루면 그것을 학문적 조롱과 매도의 대상으로 삼는 국제정치학자들의 보수적 성향이 바뀌는 것이다. 또한 국제정치란 학문이 국가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인간과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논의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엄 촘스키, 에드워드 허먼, 정경옥(옮김)(2006). 『여론조작 :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 서울 : 에코리브르.
- 데이비드 로스코프, 이현주(옮김)(2008). 『슈퍼클래스』. 서울 : 더난.
- 레슬리 스티븐슨, 데이비드 L. 헤이버먼, 박중서(옮김)(1998). 『인간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서울 : 갈라파고스.
-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옮김)(1993). 『이기적 유전자』. 서울 : 을유문화사.
- , 이한음(옮김)(2007). 『만들어진 신』. 서울 : 김영사.
- 송홍빙, 차혜정(옮김)(2007). 『화폐전쟁』. 서울 : 랜덤하우스.
- 양준희(2008). “양자물리학이 국제정치에 던지는 메시지 : 웬트의 양자역학과 양자의식기설 논의를 넘어.” 『국제정치논총』. 제 48집, 4호.
- (2009)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와 포퍼의 반증가능성.” 『한국정치연구』. 제 18집 2권.
- 이리유카바 최(1999/2009). 『그림자정부』. 서울 : 해냄.
- 장 지글러, 양영란(옮김)(2005). 『탐욕의 시대』. 서울 : 갈라파고스.
- 제프리 삭스(2001). “경제 발전의 새로운 사회학을 위한 소고.” 새뮤얼 P. 헌팅턴, 로렌스 E. 해리슨(공편),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 김영사.
- 황성환(2009).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서울 : 소나무.
- Ashworth, Lucian M.(2006). “Where are the idealists in interwar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2.
- Bernstein, Steven., Lebow, Richard N., Stein, Janice G., and Weber, Steven(2000). “God Gave Physics the Easy Problems : Adapting Social Science to an Unpredictable Worl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1).
- Booth, Ken(1991). “Security in anarchy : utopian re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Affairs*. Vol. 67, No. 3.
- Chomsky, Noam(1967/2002). *American Power and the New Mandarins*.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 (1993). *Year 501 : The Conquest Continues*. Massachusetts : South End Press.
- (1994/1996). *World Orders Old and New*.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1999). *Fateful Triangle : The United States, Israel & the Palestinians*. Massachusetts : South End Press.
- Engdahl, William(1992/2004). *A Century of War : Anglo-American Oil Politics and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 Pluto Press.

- Flynn, Ted(2000). *Hope of the Wicked : The Master Plan to Rule the World*. Virginia : MaxKol Communications, Inc.
- Griffin, David R. and Scott, Peter D(eds.)(2007). *9/11 and American Empire : Intellectuals Speak Out. vol. 1*. Massachusetts : Olive Branch Press.
- Hobbes, Thomas(1968). *Leviathan*. New York : Penguin Books
- Hoffmann, Stanley(1977). "An American Soci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 Hufschmid, Eric(2002). *Painful Questions : An Analysis of the September 11th Attack*. CA : Endpoint Software.
- Jacobs, David M.(1992). *Secret Life : Firsthand Documented Accounts of UFO Abductions*. New York : Simon & Schuster.
- Kenyon, J. Douglas(ed.)(2005). *Forbidden History : Prehistoric Technologies, Extraterrestrial Intervention, and the Suppressed Origins of Civilization*. Vermont : Bear & Company.
- Krippendorf, Ekkehart(1987). "The Dominance of American Approach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6, No. 2
- Mearsheimer, John J. and Walt, Stephen M.(2007).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 Farrar, Strauss and Giroux.
- Meyssan, Thierry(2002). *9/11 The Big Lie*. London : Carnot Publishing Ltd.
- (2002). *Pentagate*. London : Carnot Publishing Ltd.
- Mills, C. Wright(1956/2000). *The Power Elit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Morgenstern, George(1947/1991). *Pearl Harbor : The Story of the Secret War*. CT : Devin-Adair Co.
- Morgenthau, Hans(1970). *Truth and Power : Essays of a Decade, 1960-70*.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 (1985).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 New York : Alfred A. Knopf.
- Nicholson, Michael(1998). "Realism and utopianism revisite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 Niebuhr, Reinhold(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 A Study in Ethic and Politic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 Osborn, Ronald.(2009). "Noam Chomsky and the realist tradi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 Osiander, Andreas.(1998). "Rereading Early Twentieth-Century IR Theory : Id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2.
- Owens, Patricia(2007). "Beyond Strauss, lies, and the war in Iraq : Hannah Arendt's

- critique of neoconservat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 Porter, Brian(1989). "David Davies : a hunter after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 Quigley, Carroll(1966). *Tragedy & Hope : A History of the World in Our Time*. California : GSG & Associates.
- (1981). *The Anglo-American Establishment*. California : GSG & Associates
- Schmidt, Brian C. and Williams, Michael C.(2008). "The Bush Doctrine and the Iraq War : Neoconservatives versus Realists." *Security Studies*.
- Scott, Peter D.(2007). *The Road to 9/11 : Wealth, Empire, and the Future of America*.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imko, Keith L.(1992). "Realism, Neorealism, and American Liberalism." *Review of Politics*. Vol. 54, No. 2.
- Smith, Steve(2004). "Singing Our World into Exist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September 11."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8.
- Thucydides(1972).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New York : Penguin Books. I
- Wæver, Ole(1998). "The Sociology of a Not So international Discipline : American and European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 Weber, Max(1948). "Politics as a Vocation."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London : Routledge.
- Wendt, Alexander(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6). "Social Theory as Cartesian science : an auto-critique from a quantum perspective." Guzzini and Leander (eds.).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Routledge.
- Wendt, Alexander. and Duvall, Raymond(2008). "Sovereignty and the UFO." *Political Theory*. Vol. 36, No. 4.
- Zinn, Howard(1994/2002). *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 A Personal History of Our Times*. Boston : Beacon Press.
- Malikiak, Daniel. Oakes, Amy. Peterson, Susan. and Tierney, Michael(2007). "The View from the Ivory Tower : TRIP Survey of International Relations Facul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ttp://web.wm.edu/irtheoryandpractice/trip/surveyreport06-07.pdf?svr=www>. (2010년 5월 11일 검색).

Abstract

International Relations as an American Social Science and Academic Freedom:

A Need for an Expansion of Research Programmes
and the Discussion of Taboo Subje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un Hee Yang*

A revisionist historian Howard Zinn once said that “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If you remain silent on a moving train that means you are already agreeing with the speed and the destination of the train. There isn’t anybody who is not aware that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an American social science; and yet, nothing serious has been done to change the pattern. If IR scholars remain silent doing exactly what the mainstream IR community requires them to do, that would be like pretending to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ositivist and realist paradigms, which have dominated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he past forty years, might have been working as the most effective tools to serve the rich and powerful by ‘legitimately’ silencing the dissenting voices of the existing world. This article maintains that IR scholars should study not only topics like democratic peace, hegemonic stability theory, clash of civilizations etc. but also taboo subjects like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Bilderberg Group,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ewish lobby, the wall street, the Rothschild, 9/11, and even UFO. Given our academic freedom, we might be able to discover some amazing hidden power structures of the world.

■ 논문접수일 : 2010년 6월 3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8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5일